

나주 이전기관들, 공기업 고용 한파에도 정규직 채용 늘렸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13곳 1423명 신규 채용...전력거래소 2배 확대 한전, 재정난에 신규채용 줄였다 다시 늘려...지난해 600명 직원 채용

전국 공공기관의 신규 정직원 채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곳의 일반 정직원 신규채용 규모는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2023년 막대한 누적적자 등 재정난으로 인축 운영에 돌입하면서, 정직원 채용을 대폭 줄였지만 지난해 채용규모를 2.3배가량 늘렸다. 또 정직원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및 소수만 뽑았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전년보다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렸던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곳의 정규직 신규채용 수는 1423명으로 전년(947명) 대비 476명(50.3%) 증가했다.

앞서 지난 2023년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 및 한전의 재정난 등으로 정직원 신규채용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13곳의 신규 채용 수는 지난 2022년

1443명에서 2023년 947명으로 34.4% 감소했지만, 지난해 한전의 신규 채용 대폭 증가 및 대부분 기관들이 채용을 늘리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해 한전은 600명의 정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이는 전년(266명)보다 334명(125.6%) 늘린 규모로, 한전이 이번 정부 들어 신규채용 수를 1000명 이하로 내린 이후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수의 정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전체 신규채용의 30~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전의 채용 증가가 전체적인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사학연금은 지난 2023년 정직원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24명으로 늘렸고, 같은 기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규직 채용인원을 2명에서 8명으로 늘리며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채용했다.

이 밖에도 한전KDN은 44명에서 96명으로, 한국전력거래소는 11명에서 27명으로 각각 2배이상 채용을 늘렸다. 한전KPS 역시 275명에서 368명으로 93명(33.8%) 정직원 채용 인원을 늘렸던 것으로 집계됐다.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13곳의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1423명으로 전년보다 50.3% 증가했다. <광주일보 자료>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정직원 신규 채용을 늘린 반면, 전국 공기업·공공기관의 신규 정직원 채용 수는 최근 3년간 지속 줄어들어 45.4% 감소했다.

이날 리더스인덱스가 '알리오'에 공개된 339개 전국 공공기관의 일반 정규직 신규채용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정직원 신규채용 수는 1만 3350명이었다. 일반 정규직 신규채용 수는

지난 2022년 2만 4448명에서 2023년 2만 207명으로 17.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3.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파·폭설에 난방수요 증가...최대 전력수요량 90.5GW 전망

지난주보다 17.7~26.6% 증가

4일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에 따르면 2월 1주(3~7일) 전력수요량은 84.2~90.5GW(기가와트)로 전주(71.5GW) 대비 17.7~2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이번주 들어 급격한 기온 하락, 폭설 등으

로 난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예상된 결과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번주 전력 공급능력이 109.7~111.8GW, 예비전력은 19.4~25.5GW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예비율은 21.4~30.3%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4~5주(1월 20~31일)은 비교적 높은 기온과 맑은 날씨로 71.5~82.1GW를 기록했다. 전력 공급능력은 106.2~107.8GW를 기록했다.

예비력은 1월 4주차에 31.3~35.4%를 기록했지만, 5주차 들어 전력 수요량이 점차 줄어들어 지난 달 31일 기준 예비력 34.7GW, 예비율 48.5%를 기록하기도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전KPS, 브라질·남아공 등 글로벌 원전 정비 시장 확대

한국수력원자력과 루마니아 원전 1호기 설비 개선공사 협약

한전KPS가 최근 '팀 코리아'가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 공사 사업 참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전KPS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스페인 등 신규 해외원전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는 등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공사 사업수행을 위한 체결 협의를 작성했다. 이어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 공사에 대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원전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도 신설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 최종계약 체결이 예상되

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참여를 위해 현지 원전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정비기술을 선보이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원전기업인 '스코다 제이에스', '베트바르', '테즈브세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기반 구축도 완료했다.

한전KPS는 루마니아와 체코 원전 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향후 두코바니 5·6호기에 이은 신규 해외 원전건설 사업 등 추가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브라질과 스페인, 남아공 등 신규 원전시장으로의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해 브라질 현지 업체인 아이씨

서플라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앙고라 원전 2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정비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현지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해 향후 브라질에서 추가 사업 수해를 위한 입지를 다졌다.

이어 스페인에서는 현지 에이전시 계약과 업무협약 체계를 잇따라 추진하는 등 가동원전 정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도 지난 2021~2023년 원전을 포함한 16개 발전소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이후 3년간 83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오랜 경험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 원전 및 화력발전 정비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출범...지역 상생 발전 노력

연구원장에 이만원 전 발전위원장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정책연구원(연구원)'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연구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설립 취지와 비전을 설명했다. 연구원은 혁신도시 내 스마트파크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한전 등 이전 공공기관과 빛가람혁신도시, 지역 사회 간 협력 부족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초대 연구원장으로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1차 이전에 공을 쏟은 이만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겸 광주대 교수가 선임됐다.

연구원은 지역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정책 연구, 혁신도시 상생지수 및 인증 체계 개발·운영, 교육 및 컨설팅, 협력 사업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빛가람혁신도시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연구원은 빛가람혁신도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KCA,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창업기업 모집

3년간 최대 6억원·기술고도화 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DIPS 창업사업화'의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분야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해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닥터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육성된 스타트업의 독보적인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

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창업 10년 내 초격차 10대 기술 분야의 118개사 스타트업을 선발해,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기술개발 자금과 기술고도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KCA는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분야에서 일반공모 12개사, 민간 및 부처추천 8개사 등 스타트업 2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며,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글 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